■ '저축銀 비리' 국조특위 목포 현장조사

위원들, 해결책 없이 정부책임 성토만 피해자들 "정쟁 그만하고 보상 대책을"

피해보상금액 '선지급 후 재원' 마련 주장에 박수 받기도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가 부실은행 대주주의 도덕 불감증과 감독기관의 기능상실 등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26일 오전 목포시 명륜동 보해저축은행 본점에서 이틀째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보해저축은행과 전북 전일저축은행, 제주 으뜸저축은행 피해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국회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공적자금 투입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부의 구제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보해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비상대책위원회' 서상훈 위원장은 "보해 사태는 권력형 비리"라며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누구 잘못이라고 헐뜯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말고 피해보전 대책을 가장 먼저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 위원장은 피해 전액 보전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자 엄중 처벌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전일저축은행 윤형원 비대위원장은 "법 개정이 안 되고서는 방법이 없다. 국회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못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전일저축은행 전신인 상호신용금고 대표를 지낸 백기덕 공동위원장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2000년 이후 3번이나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며 "저축은행 비리는 대주주들의 무분별한 불법대출 등 토착비리의 종합결정판"이라고 검찰의 부실 수사를 성토했다.

현민준 으뜸저축은행 비대위원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70~80대 노년층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여야가 편을 갈라 강 건너 불구경만 하면 누가 해결해줄 것인가"라며 "하루속히 법을 만들거나 고쳐달라"고 호소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수사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피해자들을 거들었다.

조영택 위원(민주당)은 "기업사냥꾼 이철수 씨의 행적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답답하다"고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고, 이진복 위원(한나라당)은 "부실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사기행각과 호위호식할 수 없도록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재산을 환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건 위원(민주당)도 "부산저축은행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문을 연 뒤 "금감원 부실이 드러나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안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경태 위원(민주당)은 "국정조사 마무리 이전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선(先) 지급 후(後) 재원' 마련을 강력 주장해 참석한 피해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보해저축은행과 관련 보고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9월 중에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보해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비리 수사기록을 비롯한 문서검증 작업을 벌였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 기자 yousou@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저축은 비리 네탓 싸움

與 "PF대출 전정권 실세 연루"
野 "한-檢 손잡고 국조 물타기"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가 현장 조사에 나간 상황에서도 여야는 당에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상대 당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의혹을 밝히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5조원대 PF 대출을 하면서 상당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이 자금이 저축은행 대주주나 정관계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26일 국조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캄보디아 캄코시티·신안프로젝트·인천 효성지구·시흥 영각사 납골당·영남 알프스골프장 등 5가지로 요약된다. 한나라당이 입수한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의 PF 대출 잔액은 6월말 현재 1조3000억원을 웃돌며 이 중 상당 부분을 부산저축은행이 다양한 편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금이 사업 추진 당시 여당의 실세에게 흘러가지 않았느냐는 것이 한나라당 측의 추정이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내심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역공에 나섰다.

우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검찰로부터 무더기로 자료를 넘겨받아 입맛에 따라 구여권 연루설을 무차별적으로 흘리고 있다며 "검찰과 여당이 사실상 '팀플레이'를 펼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최근의 폭로 국면은 한나라당과 검찰의 공조 차원을 넘어선 '공동기획' 수준"이라며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전형적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특위 소속 박선숙 의원도 "한나라당이 검찰 자료를 받아 연기만 피우고 있는데, 저급한 폭로 릴레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삼화저축은행 불법자금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연루설과 관련된 '후속타'를 비롯, 현 여권 실세의 부산저축은행 캄보디아 투자 연루 의혹,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둘러싼 로비 의혹 등을 캐며 '반격 카드'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특위 관계자는 "검찰과 금융당국이 야당의 자료 요청에는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며 "발로 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이 26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열린 인권·복지·시민참여를 주제로 한 '광주시민대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순환노선 존중 노면·약지하철·모노레일 등 3가지 검토"

■ 강운태 시장 '인권·복지' 시민 대토론회

강운태 광주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기존에 결정했던 순환노선(41.5㎞)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26일 5·18 기념센터에서 열린 인권·복지·시민참여를 주제로 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건설 방식과 관련해선 "지상고가 방식의 경전철은 성공한 전례가 없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노면전철과 약지하철, 모노레일 등 3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면전철 방식은 전동차가 지표면에 맞닿아 운행하는 것이고, 약지하철은 비교적 얕은 지하 4~9m가량 깊이에서 전동차가 운행하는 방식이다. 모노레일은 쇠 파이프 교각 위에 단선을 설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강 시장은 건설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비용대비편익(B/C) 분석 결과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체증 등을 고려해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전에 착공할지, 또는 대회 이후에 착공할지는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2컨벤션센터 예정부지인 5·18자유공원 내 상무대 영창과 법정을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상무대 영창과 법정 부지를 포함하지 않고 제2컨벤션센터를 지으면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회의장을 건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면서 "5·18 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 영창과 법정을 옮기는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전국 광역시 중 광주지역 대형마트 물가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형마트가 정신 좀 차리도록 소비자단체와 시민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무슨 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옆):032)329-4400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구 동명극장 앞):055)745-9870 창원점(한마음병원 뒤):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